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초하루 보름 기도의 의미

문 불가에서는 항상 초하루 보름을 큰 날로 쳐서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들이게 하고, 정월에는 또 대보름이라고 해서 며칠씩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 정해났다고 해서 우리가 기복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마음의 불씨가 직접 통신이 되어야 대천세계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으로 굴러서 찾아라, 마음을 발견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 안으로 단추를 눌러서 찾았다면, 마음의 불씨가 바로 대천세계의 근본으로 올라서 그 불빛이 항상 밝아서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달을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이 정한 법에 그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아나는 데도 보름날은 우리 마음의 꽃봉을 켜서 대천국으로 통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도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그 마음이 전체 돌기 때문에 사왕천으로 하달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가게끔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법을 정하는 거하고 내가 상서를 올리는 거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름날 또는 초하루날 올리는 정성이 우주 어느 곳에 아니 닿는데 없이 닿아서 어디에도 다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결로써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밝음을 찾음으로써 마음이 가난치 않게 되고, 아주 안정되고 방향하지 않게 되고, 진득해지고 정잠아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보는 것이, 전자에 내가 지었으면 전부 녹아져 버리는 까닭에 현실에도 살기가 무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환이 있다, 병고 가 있다해도 생각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부터 밝음을, 거기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과거의 업보나 가환을 녹여 버리게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생활이 곤궁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먹는 사람이 금방 밥을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죽을 먹더라도 믿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 죽이 진수성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뛰지도 않으면서 어디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면 안 되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후환이 없을 거고, 세세 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극락, 천국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마음이 천국이려면 세계 전체가 다 천국이고, 마음이 극락이라면 세계 전체가 다 극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지옥이라면, 가고 오든, 만나고 헤어지든 모두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끄달리고, 그럴수록 더 괴롭고, 이것이 한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밝음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할 때는 자유권을 찾기 위해서이지 밝은 것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컴컴한 것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는 항상 들어와 있는데 단지 내 씩씩함에 따라서 전구가 작고 큰 것처럼,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것입니다. 또 다양하게 쓰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누가 쓰라 해

서 쓰는 거고, 쓰지 말라 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림들 해 보시지만 다양하고 슬기롭게 생활 속에서 참다운 우리 삶이 바로 우주 만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항상 초하루 보름 밝은 불을 켜고 사는 것이나 같을 겁니다.

주인공 찾는 방법은

문 자기 주인공을 찾는 데는 항상 되뇌면서 그 자리에 일임하고 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경전을 읽는 것보다 주인공을 관하는 것이 더 빨리 근본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 생각되지만 알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답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뜻을 아신다면 보더라도 글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말이

각 자체를 그렇게 하고 관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한시 반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다가 지나가나 그렇게 하고, 또 간절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름 때 관하는 법

문 저는 몸이 아름답게 주인공에 딱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 오면 빨리 고통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만 들고 관하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한생각을 잘하면, 생과 사도 없는 데 한 번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과 사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공부만 하면 그 모습이 없어지느냐, 또는 모습이 항상 아프지도 않고 그러느냐 하면 그건 아

자비 베풀고 욕심없이 행하면 부모자식 업보 모두 녹아

필요 없어요. 육바라밀이나 팔정도나 하고 말하는 것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념일 뿐입니다. 그렇듯이 주인공도 아무리 불러 보세요. 내 뿌리를 믿지 않는 데 나오나.

나무들도 봄에는 푸른 싹을 가지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쳐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내년 봄에 푸르게 이파리가 필 것을 생각하고, 비바람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다시 봄이 되면 그냥 잎이 피고 꽃이 피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 사람도 아등바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런 나무들은 해가 바뀌어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고동동물이기 때문에 한 철이나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못 믿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자세히 아신다면, '일체 만법은 한 구명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나 한 구명으로 되 말겨줘야 되겠구나. 모든 경계가 바로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하고선 주인공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맡기게 됩니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아닌 까닭입니다. 입으로만 부르고 다니면서 '주인공 해주시오.' 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당신이다.' 하는 걸 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 하지, 편 데서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한마음 속에서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증명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

니예요. 아프다 해도 아픈 거를 느끼지 않게 되고, 또 아픈 것에 끄달려서 고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해요.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다 하더라도 진짜 자기는 절뚝거리지 않아요. 몸이 그런 것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딱 거기에 닿고 해서 알아야 괴로운 거지 와서 닿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오겠느냐는 얘기에요. 이치가 참 묘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 생명체들, 의식들이 전체 들어 있는 거니까 몸통이든 그 생명체들의 집합소요, 집입니다. 몸통이 그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집이 고장났다고 해서 집이 집을 고칠 수가 없는 집 속에 살고있는 주인이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살다 보면

한 생각 잘하면 生·死 없어

망가지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우리 주인공이 고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 몸도 모든 생명체들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망가졌을 때 '네가 고쳐라' 이라는 겁니다. 집이 망가졌으니깐 내가 고쳐서 끌고 다녀라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속에서 병이 나게 했으니 한마음 속에서 고쳐서 끌고 다녀라 하지 않아! 심부름꾼인데...' 하는 생각을 진짜로 믿고 하세요.

그런 거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관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관법과 믿음은 돌이 아니죠. 그러니 직교소로, 자기가 공했다는 이치만 안다면 모두가 한마음이어서 너 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아픔을 느끼는 나 또한 공해서 없는 것이니까 공한 자리에 일체를 맡겨놓아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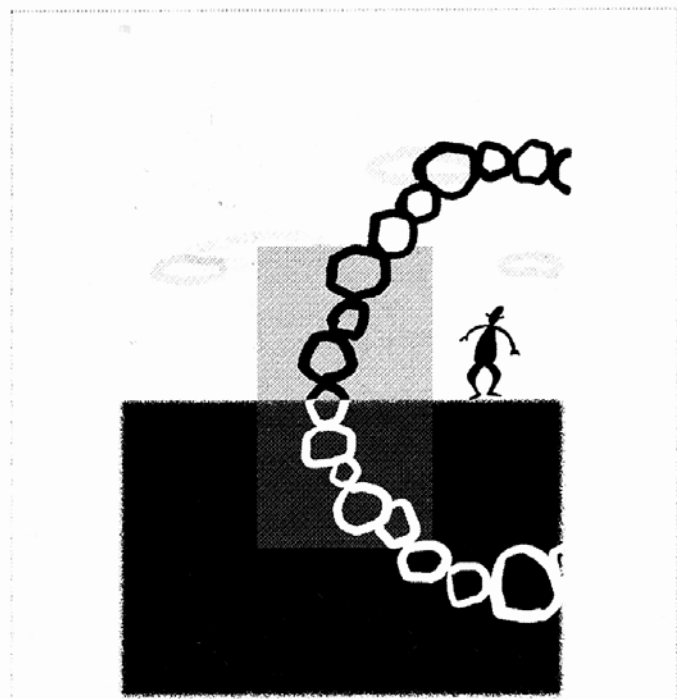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 몸의 문제를 다 벗어나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돌 아닌 도리 확실히 알려면

문 스님께서는 내 앞에 나를 해하는 상대도 돌로 보지 말라고 하시고,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돌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실천해 보려고 해도 자꾸 돌로 봐지고, 믿고, 두렵기만 한데, 돌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사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데, 마치 염주를 들릴 때 처음 시작하는 염주 알을 한 번 뛰어넘어야 하는 게 말하지만 생사에 관한 건입니다. 물질

의 자식이 되고, 짐승의 부모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이 그대로 누웠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주 알을 톨 줄과 염주 알이 돌이 아니라, 뿌리와 싹이 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化)해서 모습이 바뀌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거를,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 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돌이 아니로구나!' 하고 진실하게 알지, 직접적인 행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

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

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 공부하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돌이 아니게 상상을 해야 비로소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너 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만 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이 아니다, 영혼이 돌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돌이 아니라는 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어져 있는 겁니다. 염주 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어 있으니까 너 나가 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 알게 되는 거지만, 그대로 실천해 가다보면 진짜로 뿌리의 세계는 돌이 아니라는 것을, 영과 영이 만 개가 한데 합쳐도 영이기 때문에 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해나가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녹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실천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디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항상 컴퓨터에 비유를 해서 얘기해 드렸죠. 한 철이나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입력하는 것과 같다고요. 과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얘기해 드렸으니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불의 공덕은

문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시면서 마음으로 자성불에 예불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멀리 있는 선원까지 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예불에 참석하러 다니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불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 안으로 관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불의 의미와, 예불에 참석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예불을 올리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스님네들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올리고, 점심때는 사시마지를 올리고, 저녁 예불로써 마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침은 과거고, 점심은 현실이고, 저녁은 미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것을 한데 합쳐서 삼심을 일심으로 두고서, 아침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열심히 안으로 한마음 공덕이 되게끔 관하면서 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음에서 그냥 하면 되지, 주인공만 찾으면 됐지, 이라고선 법당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불을 모신다는 것은, 스님들이 마음을 내면 온 누리에 일체 보이는 생명이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나 한마음이 돼서 온전하는 그런 시간이지거든요. 그래서 삼세의 뜻을 한마음으로 쥐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도 한마음이고, 여길 와도 한마음이고, 집에 가도 한마음이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한마음을 내서 할 때 같이 기울여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백지장도 마주 들어야 가법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창호지 하나를 들어도 그렇고, 창호지 한 장으로 도배를 해도 그렇고, 혼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바르는 사람이 있으면 붙이는 사람이 있고,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바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모시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신심이 들끓고 스님들의 마음도, '이렇게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같이 오신 저분들...' 하고 신심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님들은 그러거나

18면으로 계속

가빠른 안목을 보듯,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시이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